

인도네시아 생명보험시장 동향1)

□ 경제 동향

- 인도네시아는 총인구 2억 8천만명에 달하는 세계 4위 인구대국이며 중위연령 29.7세, 생산가능인구(15~64세)가 약 70%인 젊은 국가로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임
 - * 2020년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를 중위소득국으로 인정
- 코로나 이후 경제 활동 재개, 경기부양책 지속,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2021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성장율을 회복했으며 2022년에도 성장 5.31%를 기록함
- 2020년 10월 이른바 옴니버스법(Omnibus Law)이라 통칭되는 고용 창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, 기존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,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고용 창출을 달성

[그림1]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 및 GDP



* 출처 : Statistics Indonesia | Central Bank of Indonesia

1) 닛세이 기초연구소, 2022년 4월~9월 세 차례에 걸쳐 연재된 「인도네시아 생명보험시장」을 참고로 작성

□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도

- 2000년 세계 38위, 점유율 0.05%이었던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시장은 20년 후인 2020년 세계 25위, 점유율 0.53% 수준까지 성장해왔으나 여전히 경제성장률 및 중산층 규모에 비해 보험시장 성숙도는 낮은 편
- 인도네시아의 보험밀도* 및 보험침투율*은 각각 68달러와 1.4%로, 우리나라는 물론 주요 동남아 국가들 보다도 낮은 수준이며[표1] 이는 향후 보험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시사함

* 보험밀도: 1인당 보험료(수입보험료÷총인구), 보험침투율 = 수입보험료÷명목GDP

[표1] 아시아 주요국 보험 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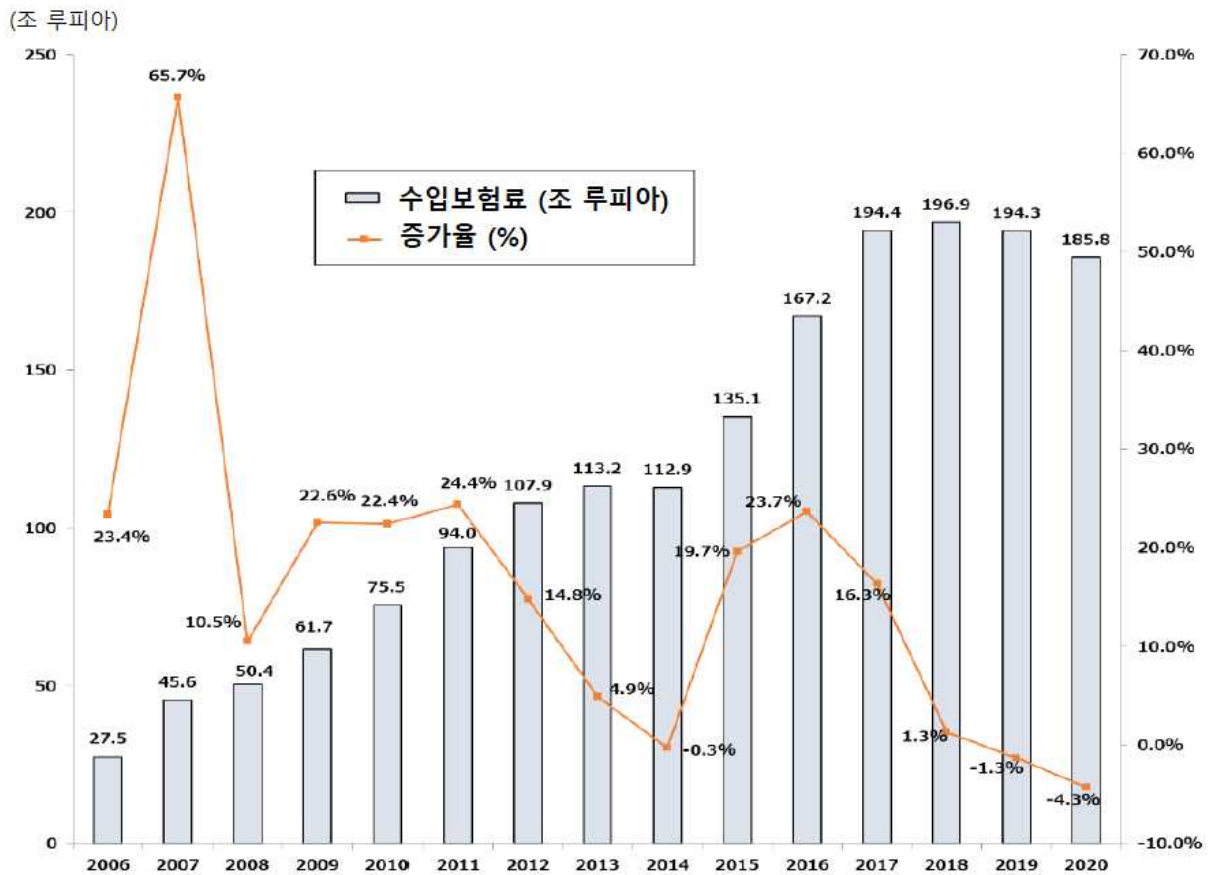
국가	보험밀도	보험침투율	총 수입보험료(백만)	1인당 명목 GDP
홍콩	\$9,159	19.0%	\$68,767	\$49,699
싱가포르	\$7,563	9.2%	\$46,984	\$79,426
대만	\$3,662	11.4%	\$86,475	\$32,643
한국	\$3,541	11.1%	\$182,846	\$32,417
일본	\$2,690	8.2%	\$337,812	\$33,739
말레이시아	\$592	5.0%	\$20,115	\$12,974
태국	\$369	5.3%	\$25,227	\$7,630
베트남	\$95	2.3%	\$11,286	\$4,162
인도네시아	\$68	1.4%	\$18,870	\$4,691
필리핀	\$67	1.9%	\$7,718	\$3,597

* 출처: 스위스리, sigma N0.3/2023

□ 생명보험 시장 주요 실적

-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시장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간 일부 기간('13~'14, '18~'20)을 제외하고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왔음
 - 2018~2019년은 자카르타 주식시장의 악화와 생보사 파산,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한 실적 악화
 - 2021년 수입보험료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섬 (129억달러)
- 2022년 생명보험 밀도는 43달러, 생명보험 침투율은 0.9%²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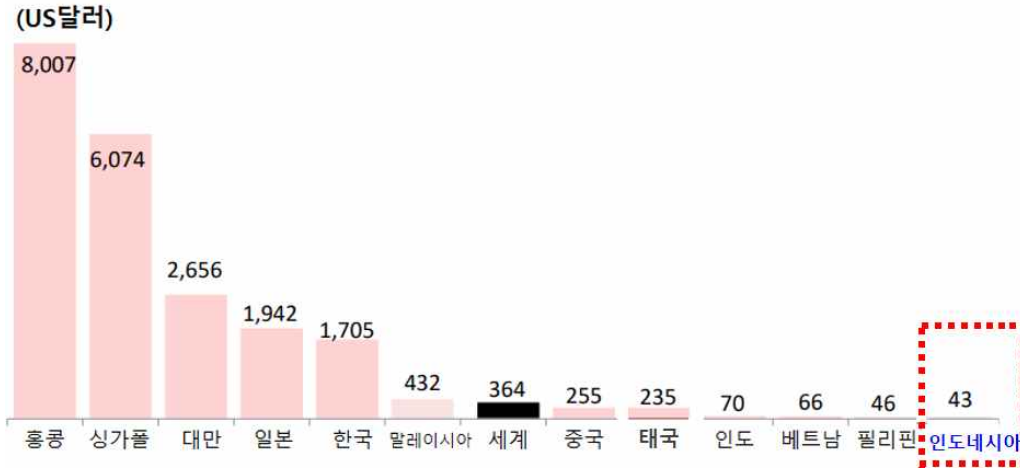
[그림2]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

* 출처 : OJK 「STATISTIK PERASURANSIAN INDONESIA」 연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닛세이기초연구소 작성

2) 스위스리 「sigma No.3/2023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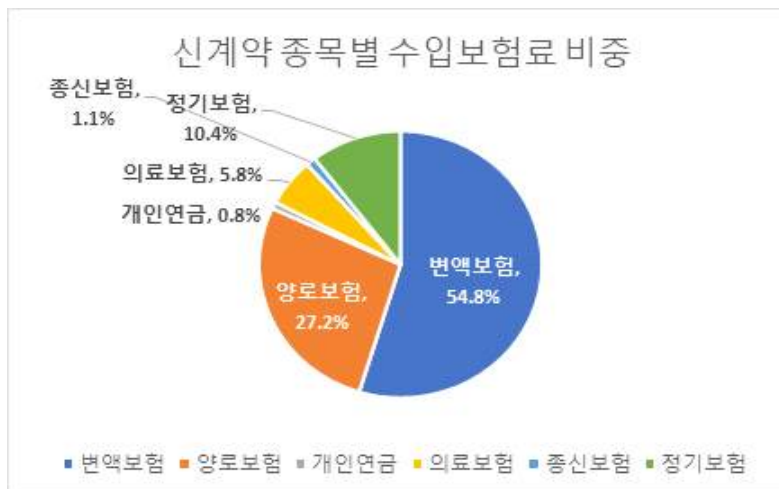
[그림3] 아시아 주요국 보험밀도 - 1인당 생명보험료(2022년)



* 출처 : 스위스리 「sigma No.3/2023」를 바탕으로 닛세이기초연구소 작성

□ 보험상품 동향

- 대부분의 아시아 생명보험시장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보장성 상품보다 저축성·투자성 상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
- 특히 유럽/미국의 변액보험상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양로보험, 이 둘을 합친 투자성 상품은 전체 생명보험의 80~90%를 차지함
- 종신/정기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은 그 비중이 적으며 의료보장은 변액보험의 특약으로 부가되는 경우가 많음



-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시장은 변액보험 비중이 크기 때문에, 보험 시장 상황이 주식시장 실적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
- 2020년 코로나 초기에 주가 하락으로 변액보험 계약자의 민원이 급증하면서 판매 시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불안전 판매 문제가 제기
- 이 문제가 확대되어 생명보험 전체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사태를 초래, 결국 감독당국(OJK)은 2022년 3월 변액보험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게 되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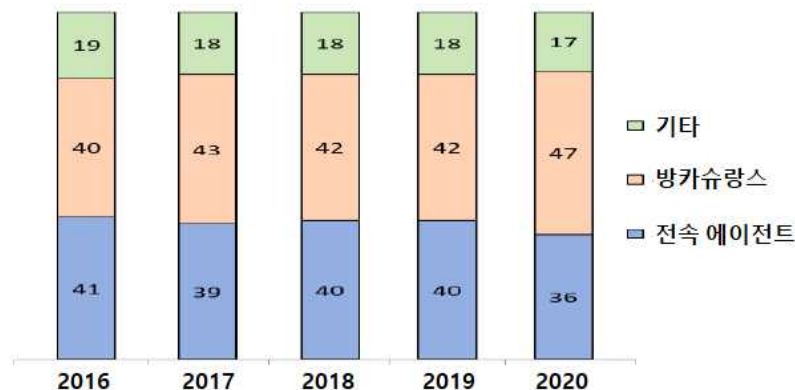
□ 판매채널 동향

-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시장은 전통적으로 특정 생보사 1개사와만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“전속 에이전트*”가 주력 채널이었으나 방카슈랑스의 급격한 성장으로 2017년 이후 방카슈랑스가 최대 채널

* 인도네시아 보험법에서는 에이전트를 「자영 또는 기업 내에서 일하는 개인이, 보험회사/샤리아 보험회사를 위해 또는 대리하여 보험회사의 상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자」로 규정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의 전속 설계사와 전속대리점을 포함하는 개념임

- ① (에이전트) 2021년 말 기준 57만 4천명. 인도네시아 생명보험협회는 거대한 대륙과 인구 수를 감안하면 향후 보험시장이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가 100만명까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

[그림4]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 (신계약보험료 기준)



* 출처 : AXCO 「INDONESIA: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」

② (방카슈랑스) 생보협회에 따르면 2020~2021년 코로나로 방문판매가 위축된 반면, 방카슈랑스가 크게 활약하며 실적을 견고하게 지탱함

* 2021년 상반기 방카슈랑스 신계약 보험료, 전년 대비 37.5% 증가

- 상위 20위권 생보사들은 대부분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그룹에 속해 있어 연계가 용이한 점, 은행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마케팅에 활용 가능하다는 규제 측면의 이점 등에 따른 실적 호조

③ (기타) 약 17%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에는 텔레마케팅, 온라인 판매, 독립대리점이 포함. 온라인 판매의 경우 비중은 작으나 디지털화와 함께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채널임

□ 회사별 동향

○ 인도네시아에서는 총 150개 회사가 보험업을 운영 중

- 생보 59개사, 손보 78개사, 재보사 8개사 및 사회보장기구 5개사

○ 생보사 59개사 중 내국계 36개사 외국계* 23개사이며 상위 5개사 중 4개사가 모두 외국계 생보사로 구성되는 등 외국계 생보사들이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을 선점

* 인도네시아 보험법에 따르면, 내국계 회사 및 국내 자본과 외국자본이 결합된 외국계 합병회사만이 보험업을 운영할 수 있음

- 2020년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국내사 40.9%, 외국계 59.1%

- 1997년 IMF 통화기금 지원 이래,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

[표2] 수입보험료 상위 5개사 (2020년)

순위	구분	회사명	수입보험료(백만 루피아)	점유율
1	외국계	푸르덴셜생명	20,686,011	12.5%
2	내국계	Simas 생명	20,228,330	12.2%
3	외국계	알리안츠생명	15,534,178	9.4%
4	외국계	AIA 파이낸셜	13,157,765	8.0%
5	외국계	약사 파이낸셜	11,095,175	6.7%

* 출처: OJK 「STATISTIK PERASURANSIAN INDONESIA 2020」